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

-복음메세지-

로마서5:8

정운돈목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모든 족속 237개 나라를 살리게 하옵시며, 이 말세지말에 일천만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참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린찬양예배를 통해서 순수한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증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시며 나의 것이 되며 복음이 누리지며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회개한 이 복음을 명확히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쉽게 말을 잘 건다. 잊고제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이 있어서 말을 건넸다. “애들아. 예수 믿어야지.” 하니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갈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다. “그러면 가지?” 했더니 이단이 하도 많아서 고민 중이라고 한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단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까? 명품에는 짝퉁이 많잖아. 예수님과 교회가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이거든. 그래서 짝퉁이 진짜 많아. 그리고 교회 가지마.” 하니 “왜요?” 한다.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가야 해. 너 문제 있어서 교회 가려고 하는 거지? 고3 이니가 대학이 고민이 되어서 교회 가면 더 골치 아파. 문제 더 많고 할 일도 많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마.” 하니가 눈빛이 달라진다. “교회 다니지 말고 복음을 알아야 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 그리고 가면 정말 행복한데, 그러지 않고 가면 갈등만 생기고, 한 번 가서 실패하면 다음에 또 못 다닌다. 시간나면 말씀공부 하자.” 해서 연락처도 받았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거나, 부모님 때문에 오게 된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럽보다는 낫지만 정말 심각한 상태이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도 그랬다. 신학교 다닐 때 까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았다.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마치 ‘그리스도’ 하면 성 빼고 ‘윤돈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정확한 이름인 것 같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대관식과도 같은 것이다. 그 때 당시 특징은 성수를 뿌리지 않았는가. 그런 것처럼 예식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관을 씌운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우리 노회 와서 담임목사 위임식을 하지 않았는가. 그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혼식도 하지 않는가. 대통령도 대통령 임직식을 하지 않는가. 그 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그 순간부터 얻게 됨을 알기를 바란다. 신약에서는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기름 부음 받는 것 같이 받은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기름부음 받은 사건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신약의 상징이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이름을 부었는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는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 그냥 구주로 오시면 될 텐데. 왜 그런가. 창3장의 문제가 불신앙의 세 가지 문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다고 한다. 선생님이 생활지도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이 말을 했다고 한다. ‘너네들이 잘못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글러먹었어. 생각을 바꿔야 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한다. 일단 그것을 믿을 때 모든 삶도, 모든 것도 달라진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으면 점점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모든 자범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서부터 근원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착하게 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아이들은 거둬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근본을

바꿔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문제가 근본문제 3가지이다. 사단이 유혹했다. 근본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불신앙, 죄, 이것을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이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많은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데 내가 보면 하나님도 해결되어있지 않다. 적용을 못한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알지만 그것을 내 삶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어설피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1. 예수님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14:6

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것을 믿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길을 알게 된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보면 이 길, 저 길 막힐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길이 막혔어요. 결혼의 길이 막혔어요. 직장의 길이 막혔어요. 경제의 길이 막혔어요. 인간관계의 길이 막혔어요.’ 우리 몸에서 길이 막히면 고혈압이 온다. 길이 막히면 문제가 온다. 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님이 길이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항상 육적으로 봤을 때는 편한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냈다. 노예의 여정이다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이라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의 여정이 노예의 여정이다. 속국생활, 포로생활이다. 광야로 가라고 하신다. 광야로 가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뜨겁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 그 길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도 많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믿음에 따라. 가라면 가지. 말이 많아.’ 나에게 말씀하셨다.(웃음) 그 때 나는 ‘아멘, 맞습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절대 부르지 않는 찬양이 있다.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이 찬양을 싫어한다고 한다.(웃음) 도시애나 가게 해주시고 시골이나 섬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웃음) 주님이 보내신 길, 어느 길이든지 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주님이 보내셨다. 초대교회성도들은 다 잃어야했다. 직업도, 경제도 잃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다 잃었는데 너무나도 행복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한 길이다. 천명, 소명, 사명이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그렇게 싸우지만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길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결론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바울은 찬양했다. 감사한 것이다. 매 맞고 고난받고 어려운데 누러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길 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가. 불편한가. 하나님이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너에게 족하다.’ 하셨다. 그 길이 축복의 길, 언약의 길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 길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믿음이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

2. 제사장으로 오셨다. 원죄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서

자기가 지은 죄나 실수 때문에 자학하는 분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할 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해결하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놀리지는 말아야 한다. 겸손하고 섬기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항상 뒤돌아보아야 한다. 인정을 하면 된다. ‘하나님 내가 부추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않게 해주세요.’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놀릴 필요는 전혀 없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일단 달란트 빛을 우리는 탕감받았다.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다. 용서해야 한다. 나에게서는 철저해야겠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싸 안아야 한다. 지적할 자격이 없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당연한 모습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도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뭐만하면 비판하고 뭐라고 한다. 그것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한 번도 눈물로 그 찬양을 해보지 못한 분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다 지워버리셨다. 하나님과 건망증이 많으시다.(웃음) 천국가서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실 것이다. 우리는 남이 잘못하면 더 기억이 잘 난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도 지워버려라.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 청소년 시절에 오토바이 타고 문신하고 다 했는데 복음 듣고 변했다. 본인이 그러더라. '내가 옛날에 그랬던가?' 잊어버렸다.(웃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이 잊어버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누가 빚지면 해결해야하지 않잖아. 죄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한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안 들리고 벌 안받은 것 많지 않은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셨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셨다. 누가 빚졌는데 아빠가 와서 갚아줬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온다. 주님께서 대신하시고 대속하셔서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해주셨다.

3. 왕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 것이다. 오래전에 봉사한다고 차 몇 대를 타고 누군가가 오셨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권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또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를 내면서 '왜 내가 사단이야!' 하셨다. 누군가가 세복이에게 '세복아, 세복이의 안에 있는 사단은 물러갈지어.' 하면 지금은 웃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라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었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갈 때 사단의 머리는 깨질 줄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니 온전히 기쁨을 여기느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어려움과 한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도 웃는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지 않았는가. 사단의 머리가 그 순간 깨지게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사단은 멍청하고 바보 같다. 사단의 머리가 똑똑할 것 같은가? 사단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살리고 선한 데는 멍청하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원인이 사단이다. 가롯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로마사람들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부활하셨다. 바보인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주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죽여도 살아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모르는 존재가 사단이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남편이 잘못했는데 '당신은 마귀야.' 하면 해결되었는가. '속으로는 '원수 같은 것.' 하고 결혼은 '여보, 사랑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실천할 때 내 안에 마귀의 머리는 박살난다. 빌립보서1:19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상식적이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했는데도 도와주는 것이다. 내 원수여도 살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일이 아닌데도 내가 하는 것이다. 흑암이 꺾일 줄을 믿기를 바란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일 어때요?" 하니까 "제 일 아니네요."하는 것이다. 그 분이 부탁하면 운전도 하고 보일러도 고쳐줬다. 그래서 불려다가 이야기했다. "선생님 내가 운전사예요? 제가 보일러공입니까? 제가 전기공입니까?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 하셨을 때 No라고 한적이 없는데 이것이 내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 때 죄송합니다. 하더라.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모른다.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이 희망의 소식이 복음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가장 복된 소식인 것이다. '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성탄절을 좋아하는지 몰라.' 한다. 애인과 연애하느라고? 아니다 분위기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날이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니까 알게 모르게 흑암이 꺾이는 것이구나. 불이 켜져있는데 자기가 켜지도 않았는데 '밝네?' 하면서 노는 것이다. 이유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 같이 즐거운 날이 없으면 허전한 것이다. '술크' 크리스마스인데 술로라는 말이다. 남자친구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 날 싸우기도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복된 소식, 우리가 영원히 지옥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땅에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 날이 성탄절이다. 시작이다. 과거에는 다 그림자였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실체가 변화하였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 확실한 날이 성탄절이다. 거기에 복음이 임하는 복된 날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데, 그것은 용서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아내가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징계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한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른다. 십자가는 형틀이다. 목걸이 하는 것은 사형 틀을 매고 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전혀 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현상이 바로 십자가이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현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줄을 믿기를 바란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이다. 십자가만 가지고서는 용서가 안 된다. 가서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었다. 너희들도 죽었다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되었다. 고민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성공자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번에 공부 실패해도 관계없다. 대학에 실패해도 관계없다. 공부를 1등으로 잘 하다가 직장생활에서 적응 못하고 힘들면 그것도 실패이다. 나중에 결혼해서 너무 불행하는 것도 실패이다. 어느 한 학생한테 '시험 어떻게 봤?' 하니까 1번으로 다 찍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13점정도 받았다고 한다. 주관식도 없었다는데, 대단한 것이다. 답 사이로 막 간다는 것이다. 찍으면 25점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웃음)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웃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부자 된다면 누가 성공자인가. 잘 먹고 잘 살면 그 사람이 성공자이다. 믿는가. 하고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땅에 살고 어려움에 당하며 모든 것을 실패하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이미 확보된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 성공을 당겨서 받으려면 땅에서 100배를 받는 것이다. 초대교회라면 '우리 다 함께 순교합시다.' 할 텐데 지금은 아니다. 너무나 축복된 시간표이다.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할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선교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른다. 여러분이 한 나라를 책임질 정도로 응답받기를 바란다. 이번에 류목사님이 화요집회 때 말씀하셨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팔려고 나온 교회가 1700개라고 한다. 이미 다 문을 닫았다고 한다. 우리 성도들이 한 가문이 한 교회를 사기를 축원한다. 호주의 현지 장로님들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돈을 얼마 안 주고 호주 교회를 넘겼다. 그분들이 말하길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인수를 해서 주일학교 하나 너무 기쁘다고 인터뷰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팔세지말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에 우리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언약, 축복의 바통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란다. 우리의 시간표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냥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성도들이 그것을 잘못 누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복음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십자가를 목상해봐라. 피, 땀, 눈물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 인류를 살렸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오늘 졸업하는 램턴들도 직장, 현장에 가서 '내 일 아니에요.'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회안에서도 이것 내일 아니네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도 땀흘리고, 피흘려서 이 자유를 지킨 것이 아닌가. 그 분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내 일 아니에요.' 하지 말고 내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라. 그것이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십자가는 인내이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 그 십자가의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될 때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에서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셨다.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어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살려야 하는 많은 현장의 주역으로 서시길 바란다. 오늘 진정으로 예수를 낳았다 그리스도로 목상하면서 주인으로 살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한국 땅과 죽어가는 한국 땅이 많지 않은가. 그 전체를 살려내는 교회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는다.